기아차 광주공장, 3세대 '쏘울 부스터' 본격 양산

가솔린 1.6 터보 · EV모델 양산…내년 1분기 내 순차적 출시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오른쪽 앞)과 나태율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왼쪽 앞)을 비롯한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지난 10일 기아차 광주 1공장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거쳐 처음으로 생산된 '쏘울 부스터' 1호차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쏘울의 3세대 모델인 '쏘울 부스터'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10일 오후 3시45분 광주 1공장에서 쏘울 부스터 1호차가 모든 생산 공정을 거쳐 처음으로 완성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기아차는 광주 1공장에서 박래석 광주공장장, 나태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 등 노사 대표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쏘울 부스터' 1호차 양산 기념식을 열고 광주공장의 미래를 밝힐 글로벌 명차 탄생을 축하했다.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 '쏘울 부스터'의 펫네임(Pet Name-특정 브랜드의 앞이나 뒤에 붙는 단어) 부스터(Booster)는 '증폭시키다', '북돋아주다', '격려하다'는 의미의 영어단어다.

쏘울 부스터가 고객들의 드라이빙 라이프와 일상을 즐겁고 당당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 기아차의 자신감을 담고 있다.

신형 쏘울은 강력한 동력 성능을 갖춘 가솔린 1.6 터보와 전기자동차(EV) 두 가지 모델로 내년 1분기 중 국내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가솔린 1.6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 204마력의 터보엔진과 7단 변속기(DCT)를 장착해 운전의 즐거움을 높였다.

차체에는 멀티 허니콤 패턴 인테이크 그릴과 날렵하고 강인한 헤드램프 등 당당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EV 모델은 배터리 용량을 2배 늘리고 모터 출력을 80% 높여 효율적으로 더 멀리 달릴 수 있다. 또 입체적인 패턴을 적용한 에어로 휠 등으로 깨끗하고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같이 '쏘울 부스터' 모든 모델은 강력한 주행성능, 완전히 새로워진 하이테크 디자인, 첨단 멀티미디어 사양 등 뛰어난 상품성을 갖췄다.

광주공장에서 지난 2008년 9월 첫 출시된 크로스오브차량 쏘울은 소형승용차로 분류되지만 레저용차량(RV)의 장점만을 접목해 그동안 실속파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쏘울 부스터는 광주공장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밝혀주기 위한 모두의 간절함과 소망이 응축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쏘울 부스터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명차 반열에 올라서 수 있도록 양산 일정을 준수하고 품질을 확보하는데 노사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나태율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도 "노동조합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쏘울 부스터가 이전 쏘울의 바통을 잘 이어 받아 광주공장을 대표하고 나아가 기아자동차를 대표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화답했다.

조인호 기자

"자연재해 재산피해 보상 보험 알아두세요"

#1. 폭우에 하천이 범람하고 호우경보까지 발표돼 A씨는 주택에서 나와 고지대로 피신해야했다. 이후 집에 돌아간 A씨는 폭우에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지고 가전제품과 수도 · 전기설비가 모두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앞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둔 덕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을 받았다.

#2. B씨는 지난 여름 끓어오른 폭염으로 기르던 돼지 수십마리를 잃었다. 그나마 가축재해보험을 들어둔 덕에 금전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꿀Tip]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사례를 들며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소개했다.

◇풍수해보험, 주택 · 상가 피해 보상…국가가 보험료 지원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가 불러온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피해가 보상 대상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배보험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의 성격을 지닌다.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34%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발생한 상가나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재특약으로도 자연재해 피해 보상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풍수재특약이나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관련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대부분 취급한다.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라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한다.

◇농작물 · 가축 피해도 보험 들면 보상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유용하다. 이 역시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50% 이상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와 지역에 제한이 있다. 품목과 가축의 특성에 따라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도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나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비자가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여러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뉴시스

중흥건설, 광주 임동2구역 일반공급

S-클래스 · 고운라피네 437가구 지하 2층~지상 24층 9개동

중흥건설은 고운시티아이와 공동시공하는 광주 임동2구역 '중흥S-클래스 · 고운라피네'를 오는 14일 일반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임동2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 · 고운라피네는 지하 2층~지상 24층 9개동 규모다.

전용 39㎡ 56가구(임대), 59㎡ 94가구, 73㎡ 110가구, 84㎡ 394가구 등 총 654가구이며 이 중 437가구를 일반공급한다.

중흥S-클래스 · 고운라피네는 인근 광주역 일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과 광주역이 가깝고, 주변 서림로, 상무대로 등을 통한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서림초, 용봉초, 북성중, 전남대사대부중, 광주일고, 광주고, 광주교대 등 학군과 인접하고, 단지 앞에 펼쳐진 광주천 수변공원은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더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4Bay 설계(일부 세대)로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주차대수가 세대당 1.31대로 계획돼 넉넉한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단지 곳곳에는 입주민을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공간도 조성한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경로당과 주민회의실, 실내골프연습장,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도 계획돼 있다.

견본주택은 광주역 바로 앞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1년 6월 예정이다.

11월 車 생산 · 수출↑ 올 400만대 수출 가능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올해 파업 등의 변수가 없으면 400만대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은 지난해 10월보다 각각 2.2%,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수와 자동차부품 수출은 0.4%, 0.6%씩 감소했다.

올해 1~11월까지 완성차 생산은 367만1784대를 기록, 파업 등의 변수가 없다면 올해 생산은 400만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은 조업일수가 전년과 동일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39만573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내수 및 자동차부품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한 16만2748대로 나타났다. 국산차는 13만8612대로 전년 동월대비 0.7%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2만4136대로 전년 동월대비 1.6%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모두 증가했고 친환경차 전체로는 전년동월대비 35.5% 증가한 1만5776대에 달했다.

뉴시스

중소기업부 전남동부사무소, '찾아가는 수출상담반'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광주 · 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전남 동부사무소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수출상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동부지역의 수출업체가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 필요가 없도록 수출상담반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일괄 · 신속하게 도와주는 서비스 창구이다.

수출상담반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 담당자, KOTRA 수출전문위원 그리고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수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동부사무소 수출 전문위원은 수 십년간 기업에 머물며 해외시장 개척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어 발굴에서 수출 계약서류 작성까지 현장감 있는 실무지원이 가능한 전문가이며, 비즈니스지원단은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등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인력풀(POOL)이다.

수출상담반 운영은 전남지역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 해결을 위해 '즉시 자료 · 정보 제공/ 유관기관 협조요청/ 정책 제안 등'으로 문제를 구분하여 해결하고, 바이어 연결, 수출계약서 검토, 수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